성화 백두산·무등 채화···임진각서 합화 추진



김윤석(왼쪽 세번째)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과 에릭 생트롱(〃 두번째) FISU 사무총장 등이 13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회의실에서 단체종목 조 추첨 행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U대회 단체종목 조추첨 마무리…남북 단일팀 최종 무산 FISU 경기장 개·보수 지연 우려에 5월까지 마무리 약속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공식 무산됐 다. 국가 대항인 U대회의 특성상 단체 종목 조 추첨이 끝난 상황에서 남북 단 일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0면〉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 총장은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단체종목 조추첨 행사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체종목 대진표가 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 성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팀 구성은 안 된다"고 밝혔다.

> 김 총장은 "당초 엔트리 신청때 단일 팀을 전제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성화 백두산 채화와 판문 점 봉송,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와 관 련,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만 백두산·무등산 성화 채 화 후 임진각에서 합화하는 방안과 북

측 응원단을 보내달라는 요청하고 정 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에릭 생트롱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사무총장도 "성화 채화와 봉송 은 주최국인 한국과 북한이 협의해야 한다"며 "FISU에서는 성화 봉송 등 만 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에릭 사무총장은 "전체적으로 만족 스럽지만 일부 시설의 개보수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설

윤 시장은 "사고가 났는데도 대회

조직위원장인 시장한테도 보고되지 않

았다. 대규모 대회에서는 조그만 실수

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어디서 '누

수'가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윤 시장은 또 사고 당일인 12일 광주

한 호텔에서 있었던 광주U대회 참가

국 대표단장 만찬 간담회에 대해서도

"식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웠

다"며 소홀한 손님접대를 고백하고, U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회 조직위의 분발을 촉구했다.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매니저나 경기 매니저가 사전에 대화를 준비하려면 최소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는 시설이 완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 준비와 테스트이벤트 등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대회 몇 개월 전에 공사 가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신규 시설은 거의 끝났다. 개보수 시설이 65곳 정도 되는데 1~2개월이면 공사가 끝난다. 미리 공사를 하면 경기장이 손상될 수 있어 늦춘 것"이라며 "5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고체계 이모양…" 버럭 화낸 윤장현 시장

U대회 축구기술위원 교통사고 보고 지연·식은 음식 대접 질책

"세월호 사고가 난지 1년이 돼가고 있지만, (광주시의)재난대응 보고 체계 는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광 주를 찾은 손님들에게 식은 음식부터 대접해 부끄러웠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윤장현 광주시 장이 이례적으로 직원들을 강하게 질 책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 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 U 대회 사전회의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기술위원 등의 교통사고 보고 지연과 허술한 식사대접 등을 조목조목 지적

윤 시장은 "어제(12일) 발생한 사건

은 매우 유감이다. 봉선동(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사고 때 비상상황 발생 보고 체계를 당부했는데 아직도 허점이 많

윤 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10시25분 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축구 기술위원 등이 축구훈련장인 광주과 학기술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 는데도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점을

과 안내요원, 운전자 등 4명이 타고 있 었으나 사고가 경미해 인근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 뒤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다"고 말했다.

지적한 것이다. 당시 승합차에는 러시아 기술위원

알려졌다.

오는 7월 3일 개막해 14일까지 계속 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 회)의 입장권 예매가 13일 시작됐다.

U대회 입장권 예매 시작

U대회 조직위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시체육회와 U대회 입장권 단체구매 약정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U대회 입장권 예매를 개시했다. U대 회 입장권 판매 목표액은 모두 60억원 으로,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달부터 6월까지 기업체, 관계 기관, 단체, 출향 인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입장권 가격은 개·폐회식을 총 3등급 (S·A·B석)으로 나눠 개회식은 30만 원·20만원·10만원이며, 폐회식은 20만 원·15만원·7만원이다. 일반 경기는 무 료에서부터 8천원까지이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최고 2만원에서 최소 5천원의 요금이 책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

월산동에 마을 공동체 주택 들어선다

광주시, 양동시장 인근 사업지 선정 빈집 철거·골목길 개선 등

저층형 공동체 주택과 주민 커뮤니티가 건립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으로 자치운 영이 가능한 광주형 '마을 공동체 주택'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 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마을형 공동체주택 시 범사업 대상 후보지 5곳 중 남구 월산동의 양동시장 인근 낙후 주거지역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체 주택 건설의 핵심 5대 기반 구성 요소인 ▲인문사회기반 ▲물적주거 기반 ▲인적자원기반 ▲순환복지기반 ▲ 공유경제기반 등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 유 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를

광주시의 민선 6기 공약과제이기도 한 공동체주택 사업은 도시화, 가구 분화, 전

면 철거 재개발 등에 따른 공동체 파괴현 상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계층의 주거실태가 취약해지는 부작용 등을 최소 화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폐가 등 노후주 택이 많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빈집을 철거하고 저층형 공동체 주 택과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한다. 골 목길 개선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 치운영이 가능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 목표

광주시는 공동체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 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청신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국고 지원 기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현안의 하나인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일 단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이 사업이 정 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됐 다. 기재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해 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모 두 1175억원(국비 384억원·시비 470억원 등)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재정에 큰 부 담이기 때문이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은 광 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하나

로, '시각미디어문화권'(북구)의 핵심 현

사업대상지는 북구 중외공원과 용봉지 구 일대로 주요 사업은 파빌리온(국가관・ 역사관), 야외음악당 건립, 공방촌 조성 등 이다. 서광주IC로 단절돼 있는 광주시립 민속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을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사업을 완료하면 중외공원과 용봉 지구 일대가 문화예술의 중심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7대 문화권의 핵심지구인 문화전 당권(동구)과 아시아문화교류권 조성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임시개장하고 있 는 사직전망타워는 문화교류권 사업의 아 이콘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업무태만 영암 공무원들 11억 손실 변상해야"

감사원 "2009년 도시개발사업 보증서 발급 안해 선급금 못받아"

감사원은 13일 변상 업무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않아 영암군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담당 공무원들에게 손해액을 변상하 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영암군에 대한 서 면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2009년 4월과 6월 A업체와 도시개발사업 1·2차 계약을 체결하며 선급금 10억1000 만원과 15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가 진행되면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에 차 질이 생길 경우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차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받았 지만, 2차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받지 않았다. 결국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은 채 보증 기간이 만료됐고, 해당 업 체마저 부도가 나 선급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다.





